

균형감각 뛰어난 '신사의 나라' 역사

케네스 O·모건 엮음 《옥스퍼드 영국사》

송규범

서원대 교수·역사학

영국은 우리의 현대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를테면 의회민주주의, 산업화, 계급갈등, 복지국가 등등의 현상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가장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국의 역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질 만함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통사 하나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 형편에서 본격적인 통사인 《옥스퍼드 영국사》(영국사학회 옮김)가 출간된 것은 비록 번역서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영국사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극적이고 다채로운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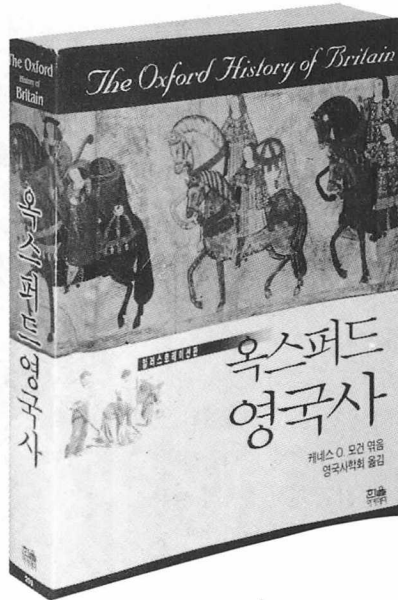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신사의 나라' 라는 어구에서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즉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과정을 통해 순조롭게 역사발전을 도모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영국의 역사도 여느 나라 못지 않게 "인간 경험의 정치적·경제적·지적 소용돌이에 의해서 산산조각으로 찢겨나간 극적이고, 다채롭고, 또한 종종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야기임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영국사의 전 시대를 10단계로 나누어서, 각 시대를 전공자 10명이 분담하여 집필했다. 공동집필의 최대 장점은 각부분을 사계의 전문가가 말씀으로써 아주 최근의 연구성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혜택을 십분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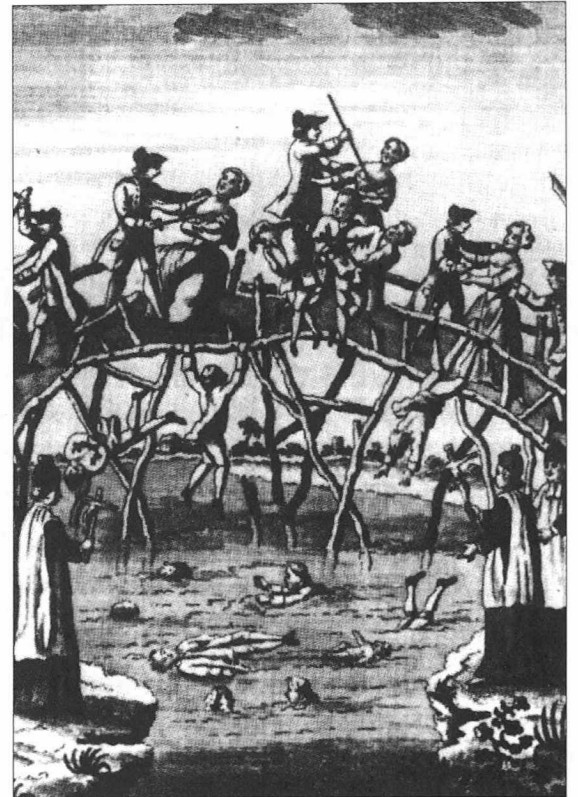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대체로 이른바 역사의 내면 발전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비교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에 의거하였다. 이를테면 로마인, 앵글로-색슨족, 노르만족 등의 계기적인 정복이나 이주, 튜더와 스튜어트같은 왕조, 혹은 세기가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기준에 의한 시대구분은 사실 그것 자체가 내적 발전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이 취한 시대구분은 다분히 서술의 편의를 위한 고려의 결과

이 책은 영국이 흔히 '신사의 나라' 라는 어구에서 막연하게 느끼는,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과정으로 역사발전을 도모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수정시킨다. 영국 역사도 여느 나라 못지 않게 정치적·경제적 소용돌이에 의해 산산조각으로 찢겨나간 극적인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심한 민간인 학살로 알려진 1641년의 얼스터 개신교 학살사건.



이기도 하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누어진 10개의 각 시대는 대체로 비슷한 분량의 지면을 할당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 시대간의 균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제1장 '로마시대의 브리튼'은 많은 개설서가 주마간산식으로 처리하는데 비하면 꽤 융숭한 대접을, 그리고 제7장 '18세기'는 좀 홀대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지만 말이다.

역사, 특히 종합적인 통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다. 이 책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각시대간의 비중에서뿐만 아니라, 각분야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단행본으로 된 통사들이 흔히 그렇듯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의 어느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많은 현상들을 간과해 버리는 역사책들을 흔히 본다.

그러나 이 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역사의 각분야들을 골고루 다루면서, 또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을 서술함에 있어서 분류사적인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필자에 따라서 서술방식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은 가능한 한 각 분야의 현상들을 상호 교직하여 역사의 전

체상을 종합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였다. 역사를 각분야나 주제별로 분해하여 분류사적으로 서술하면, 읽기도 편하리니와 쓰기도 쉽다.

그러나 역사를 그렇게 파편화하면 각분야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종합적인 역사상을 그려주지는 못하게 마련이다. 이 책은 역자도 인정했듯이 심심풀이삼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 그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산뜻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 데에 많은 이유가 있다.

용어의 일관성 유지

읽기에 어렵다는 말이 읽기에 재미없다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요즘 역사의 대중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쉽고 재미있는' 역사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결여하거나, 균형감각을 결여하여 깃털에 해당할만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마치 몸통이나 되는 양 뺨뺨기함으로써 역사의 실상을 오도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래서 흥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책들이 흥미와 재미는커녕 짜증만을 불러일으키기 일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진짜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비록 읽는데 주의력의 집중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따끔 노력이 없이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선다 얻을 수 있으랴! 하기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김수현류의 일일연속극보다 재미없다고 하면 할말은 없다.

역사서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역사적 용어의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더군다나 저 먼 옛날의 제도나 관행을 똑 떨어지게 표현할 우리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택하는 용어가 다양한데, 20여명이나 되는 많은 학자가 번역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들이 이 책에 기울인 정성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서 몇 개나 틀린 것을 찾아 내기도 하는 우리의 출판문화현실에 비추어 볼 때 700쪽이 훨씬 넘는 두터운 책에서 연도와 표기 등에 몇 군데 오자가 눈에 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이 책을 칭찬하는 일이 되는 셈일까? ◆

한울아카데미/B5/742면/40,000원